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김지경*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사교육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을 조명함으로써 사교육의 문제가 학령기 이후에 불거지는 문제가 아닌 취학 전부터 시작되어 취학 후 학령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장기간 이어지는 문제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우리사회의 사교육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자료의 7세 이하 미취학자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사교육실태와 이용여부 및 지출비용의 결정요인을 SBCR(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모형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적지 않은 비율의 미취학자녀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이용과는 별도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용하는 사교육은 우선 선택되는 보육이나 교육의 형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3-5세 영아가 이용하는 사교육은 보육의 성격이 강한 반면에 6-7세 유아가 이용하는 사교육은 취학을 위한 준비학습의 성격이 강하여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영아의 경우는 보육의 측면, 유아의 경우는 예비학습의 측면에서 이해하여 연령별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사교육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취학자녀시기부터 초등학교 이후까지 연계되는 사교육의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해야하며, 이 흐름이 어떠한 시점에서 심화되고 변화되며 그 원인인 무엇이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 문제제기

최근 우리사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논의는 중심은 ‘사교육비 경감’에 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비의 부담이 가계지출에 있어 사교육비를 제외한 다른 부문의 소비여력을 위축시킴으로써 불균형적인 소비지출을 가져오고 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가계가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차이는 사교육에 지출할 수 있는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자녀가 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질의 차이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을 왜곡하고 사회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김지경, 2003a).

이러한 사교육문제에 관한 현상의 진단과 원인 그리고 해소방안은 실태조사와 실증연구들(한국교육개발원, 2003; 이성립, 2002; 교육부, 2001; 박미희·여정성, 2000; 이승신, 2000; 김시월·박배진, 1999; 김시월, 1999; 김홍주 외, 1999; 백일우, 1999; 박기백, 1998; 양세정·이윤금, 1997; 정영숙, 1996a; 1996b; 김인숙·여정성, 1996; 박명희, 1976)을 통하여 논의되어 왔다. 이들 연구들에서 정의하는 사교육의 범위와 분석대상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한가지 공통적인 것은 공교육으로 일컬어지는 학교교육 이외에 수업을 받는 활동을 사교육으로 이해하고, 초·중·고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팀 책임연구원(jklim@kli.re.kr)

이들 연구에서처럼 이제까지 사교육의 문제를 거론하는데 있어서의 관심 대상은 학령기 자녀에 한정되어 공교육으로 들어서지 않은 미취학 자녀는 그 대상에서 접어 둔 채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도 그럴 것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사교육의 문제는 입시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문제로 귀결되었고, 이로 인하여 1960년대 이래 40여 년이 넘도록 재차 반복되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과외의 규제 또는 완화였기 때문에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김지경, 2003c). 또한 취학 전에 받는 사교육이 보육과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고, 이들이 공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 학령기 이전에 받는 교육은 그 성격에 관한 규명조차 없이 단순히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으로 간주되어왔다. 무엇보다도 최근까지 사교육과 관련된 각계의 조사 자료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실증연구들이 중·고생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학령기 자녀들을 중심으로 한 분석자료를 사용하여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이용 및 지출비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가 없기도 하였다.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은 영유아의 보육이나 유치원교육과 관련한 실태조사 자료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나정 외(2003)의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만 3세 이전부터 학습지를 하거나 영어, 체육 등을 비롯한 각종 학원을 이용하여 조기교육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미취학 유아의 경우 교육기관(유치원)에 납입하는 비용보다 과외비 지출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기숙 외(2001)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글, 수학, 영어 등의 조기 특기교육을 받고 있는 미취학 아동이 86%에 달하고, 사교육비로 2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11.2%)이 적지 않아 학령기 자녀들에 못지 않게 미취학자녀들이 사교육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취학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발달교육으로 한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동시에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특기 및 재능교육 성격의 사교육이 이미 학령기 이전에 시작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사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교육의 문제가 공교육에 접어든 연령을 시발점으로 하여 불거지는 문제는 결코 아니며 공교육에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상당부분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교육의 문제가 연령에 따라 단절된 형태가 아닌 생애주기와 함께 연이어지는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겠으나 우리사회의 사교육의 문제는 영유아 시기부터 학령기를 마치는 시기까지 대략 20여 년 정도 이어지는 장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공교육의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사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단기적 미봉책의 제시보다는 공교육 이전 시기부터 사교육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한 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최소한 20년을 아우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에 관하여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이 시작되는 학령기 이전 시점에서부터 사교육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미취학 자녀들의 사교육관련 항목이 상세하게 조사되어 있는 한국노동패널 5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의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의 결정요인을 기초분석과 모델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미취학자녀들이 이용하는 사교육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

게 유명하고자 보육과 교육의 기능이 엉켜있는 취학 전 사교육을 영아기에 이용하는 사교육과 유아기에 이용하는 사교육으로 구분하여 각 연령대의 사교육이용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학령기 이전부터 이어지는 사교육의 문제를 진단하는데 있어 학령기의 사교육과 연계되어 파악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의 성격을 제대로 규명함으로써 이 시기에 보육 및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교육 및 사교육비의 정의

사교육규모의 측정이나 우리사회에 미치는 사교육의 영향 그리고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제안 등 사교육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연구의 초점과 실증분석의 대상 그리고 분석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개념과 범주로 사교육을 정의하였다.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현황에 대해 기초 분석한 박명희(1976)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녀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일체의 경비를 사교육비로 정의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 없이 자녀양육에 드는 모든 교육비를 사교육비로 광범위하게 정의 내렸다. 이보다 범위를 좁혀 공은배·천세영(1989)은 사교육비를 학생들의 교재비, 사설학원비 등과 같이 철저히 개인의 자유 계획에 의해 집행되는 경비로 정의하였고, 같은 맥락에서 김인숙·여정성(1996)의 연구에서는 자녀 교육에 지출하는 경제적 비용을 사교육비로 정의하였으며 학습교육비(속셈학원, 학습지, 과외)와 재능교육비(예체능학원)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전국단위의 표본으로 사교육비 규모를 측정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에서는 자녀의 학교교육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불하는 비용 외에 재능개발이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각 가계가 부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사교육비로 정의하고 학원수강, 과외교습, 유치원, 학습지구독, 방과후보충학습 비용을 합산하여 가계의 사교육비로 측정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사교육을 공교육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였는데, 김시월(1999)의 연구에서는 공교육비를 제외한 학교교과목 관련, 과외비, 학원비, 예체능·교양을 위한 과외, 학습지, 참고서 문구류 등을 사교육비로 정의하였고, 김홍주외(1999)의 연구에서는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하여 직접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로서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 즉, 학교교육 외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적으로 받는 교육을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학교에 재학하기 위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교육경비를 일반사교육비로 하고 학교 밖에서 개인의 추가 학습을 위해 지출하는 교육경비를 과외사교육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러한 사교육비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나열 한 후, 그 중 일반사교육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제외하고 통상 과외비로 이해되는 항목들을 추려 사교육비측정에 적용한 것은 최근의 실태조사에서

이다. 교육부의 '2000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는 교육활동에 투입되기는 하지만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내지는 학생이 직접 지출하는 경비를 사교육비로 정의하고, 입시학원, 개인/그룹과외비, 특기/재능학원비, 학교내 방과후과외비, 학습지/통신과외비, 취업준비학원비를 사교육비에 포함하여 사교육비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2003)의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경감대책연구'에서는 사교육에 포함하는 항목이 차이가 있기는 하나 교육부의 2000년 실태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각급 학교(초중고)의 학교교육(정규교육활동, 방과후 특기, 적성교육활동) 이외의 수업을 받는 일체의 과외교육을 사교육비로 정의하고, 개인이 사교육의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예/체능 및 특기재능 발달을 위한 과외비, 취업준비를 위한 각종 과외비와 이를 위한 교재비를 사교육비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연구들에 적용된 사교육의 정의는 그 대상을 공교육 범위 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취학 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을 정의하는데 있어 우선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학원, 개인/그룹과외, 학습지, 방과후교실(사회복지관, 공부방 등에서의 교육활동)을 '사교육'이라 하고, 이들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사교육비'로 정의하고자 한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사교육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유치원에서도 교육이외에 보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¹⁾, 보육시설에서도 보육만이 아닌 교육도²⁾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들 기관에서 교육과 보육을 명확하게 구분해 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용은 학령기 이후의 자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다른 연령층과 연계하여 사교육의 이용 정도 및 지출비용의 규모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사교육의 접근이론

우리사회에서 사교육을 설명하고자 적용하는 이론은 입시경쟁위주의 사교육경쟁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과 게임이론(game theory)이 있고, 사교육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선별가설(Screening hypothesis), 이중노동시장가설(Dual labor market hypothesis), 급진론적접근(radical approach) 등이 있다.

기대이론은 사교육이 개인의 동기유발의 정도 또는 욕구의 강도(학력/학벌사회, 방어심리, 면책심리)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효용(과외를 통하여 성적이 향상될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효용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명문대학진학)를 유발할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게임이론에서는 입시위주의 경쟁적 사교육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데, 게임이 발생하는 사회를 '명문대

1) 교육인적자원부(2002)의 '유치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2,458개소 56,688명의 원아가 종일반을 이용하고 있으며, 4,240개소 228,105명의 원아가 시간연장제(유아교육진흥법 제6조 【수업과정】: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를 이용하고 있음.

2) 서문화 외(2002)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의 74.6%가 1가지 이상의 특별활동(재능/특기교육: 영어, 미술, 피아노, 유아체조 등)을 실시하고, 6가지 이상을 실시하는 경우도 5.7% 정도이며 평균 3가지 정도를 실시하고 있어 보육시설의 경우도 특별활동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학에 진학하는 것이 공정/불공정 보수를 제공하는 학력/학벌사회' 라고 가정하고, 과외행위는 기본적으로 경제행위 즉 과외라는 소비재를 구매하기 위해서 일종의 비용을 지급해야하는 것이므로 과외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이 과외비를 지불할 수 있는 가계의 자녀로 한정되어 과외행위 자체가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본다(한국교육개발원, 2003). 이 이론은 교육이 가져다주리라고 기대하는 생산성 향상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인적자본이론과는 구별되고 선별가설과는 맥락을 같이하지만, 학벌을 나타내는 졸업장과 같은 선별도구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아 선별가설과도 차별되며,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중노동시장가설이나 급진론적접근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는다.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교육을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보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인적자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므로 노동시장에서 받는 높은 소득은 인적자본의 생산성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인식되기 때문이다(Mincer, 1958; Schultz, 1961).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계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교육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육의 기회비용과 졸업후의 기대수익률이며, 교육에서 오는 추가적인 기대수익률과 추가적인 기회비용이 같아 질 때까지 자녀교육에 투자하게 된다(Becker, 1994). 이처럼 인적자본이론은 '교육-노동생산성-미래의 소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핵심으로 하며 노동생산성 향상을 교육의 주 기능으로 간주한다.

이와는 달리 선별가설에서는 교육이 유능한 사람을 걸러내는 체(filter)의 기능을 한다는 기본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교육에 의해 개인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이 가진 재능의 차이를 교육의 정도로 구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Layard & Pascharopoulos, 1974). 고용주가 노동자에 대해서 갖는 비대칭정보로 인하여 고용주에게 있어서는 교육이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유일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즉 선별가설에서는 교육이 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선별과정(screening process)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교육이 선별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학력간 소득격차의 상당부분은 교육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의 생산성보다 과대평가 되고 과잉교육열로 인한 학력 인플레이션을 낳게되어 사교육의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

인적자본이론과 선별가설이 교육에 대한 비용의 지출이 개인적인 선택 또는 의사결정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이중노동시장가설이나 급진론적접근은 산업 및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중노동시장가설은 현대 산업경제가 독점자본주의에 의해 형성되는 중심산업과 경쟁적 자본주의에 의한 주변산업의 이중적 구조로 발전되어 왔으며, 노동자의 소득이 생산성이나 학력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노동자가 경제의 어느 구조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Layard & Pascharopoulos, 1974). 교육과 소득을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중간과정을 통해 인과적 관계로 설명하는 인적자본론과는 달리 급진론적 접근은 신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교육과 소득의 관계를 풀어낸다. 이 이론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기본적인 역할이 자본주의적 질서를 재생산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고학력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단순히 생산성이 높아서 뿐만 아니라 교육이 계급에 기초를 둔 권력구조의 수용태도를 배양하기 때문이라고 봄으로써 교육불평등을 고

착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수단이라고 이해한다(Boweles, 1972; 이준구, 1993; 박미희·여정성, 1996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다양한 시각의 이론들 중에서 미취학자녀들의 사교육의 이용과 지출비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무엇인가? 영유아시기의 치열한 경쟁이 수반되는 입시과외가 아닌 재능 및 특기교육이므로, 입시위주의 과외행위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기대이론이나 게임이론 그리고 선별가설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단독 의사결정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선택행위에 입각한, 그리고 사교육을 자녀라는 가계특화자본에 투자하여 인적자본의 향상을 꾀한다는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인적자본이론이 가장 설득력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을 자녀가 양육되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들 이론들이 통합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교육비의 영향요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사교육 이용과 사교육비의 영향 요인들 중 그 분석대상에 상관없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요인은 가계소득과 부모의 학력이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중·고생을 둔 학부모 514명을 조사하여 사교육비를 종속변수로 한 정영숙(1996)의 연구,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자녀의 학부모 761명을 조사한 김인숙·여정성(1996)의 연구, 1993년 대우패널자료를 분석한 문숙재 외(1996)의 연구, 인천의 일반계고등학교 2학년생이 있는 602가구를 조사한 유형선·윤정혜(1999)의 연구,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97년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조사' 자료를 분석한 박미희·여정성(2000)의 연구에서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교육이 당연재라면 사교육은 선택재라 할 수 있으므로 사교육이 지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소득과의 정적인 관계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정영숙, 1996). 이처럼 가계소득이 사교육비 지출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면 점차 급증하고 있는 사교육비지출의 증가가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의 불평등을 유발하고 이것이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킨다(김지경, 2003a)는 것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사실은 교육이 계급사회를 고착화시키고 불평등을 재생산해낸다는 우려를 묵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거주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실증분석연구의 결과에서도 꾸준히 밝혀진 사실인데, 서울지역과 그 외 지역을 비교해보면 서울지역 거주자들의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높으며(박미희·여정성, 2000; 이승신, 2002, 김지경, 2003a), 서울지역 중에서도 강남 지역이 그 외 지역에 비해 더 많이 지출(김인숙·여정성, 1996; 김지경, 2003a)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수준과는 달리 자녀의 연령과 수의 효과는 각 연구마다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즉 자녀의 연령이나 수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정영숙, 1996; 김인숙·여정성, 1996)가 있는 반면, 문숙재 외(1996)의 연구에서는 첫 자녀의 연령이 중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인 경우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박미희·여정성(2000)의 연구에서는 한 자녀 가계보다는 두 자녀의 가계가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며, 이승신(2002)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중고생인 경우가 취학전이나 초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993년, 1995년, 1996년의 대우패널자료를 분석한 박기백(1998)의 연구에서도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가 많으면 가계의 총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녀수는 많을지언정 사교육이용자녀가 적다면 자녀수가 많더라도 가계의 총 사교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과 수의 영향이 각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난 것은 이들 모형이 사교육의 이용여부를 거치지 않고 사교육을 지출하는 가구의 응답만을 종속변수로 한 단순회귀모형으로 분석하여 선택편의(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안고 있으며, 개별 자녀별로 사교육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령과 수가 통제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도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는데, 정영숙(1996)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과 사교육비 지출은 부(-)적인 관계로 나타나 취업주부의 가계보다 비취업주부의 가계에서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박미희·여정성(199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취업을 한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자녀가 딸인 경우에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박미희·여정성, 1996),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이고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의 경우가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기백, 1998).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미취학자녀의 사교육 이용 및 지출 비용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미취학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교육이용여부에 따른 미취학자녀와 그 가계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영아기와 유아기의 사교육이용 유형과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어떠한 종류의 사교육을 이용하는가?

셋째,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이용여부 및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영아기와 유아기로 구분된 두 집단의 결정요인은 일치하는가?

2.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 사용된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자료의 장점을 모두 가지는 국내 유일의 노동관련 패널조사자료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5,000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추적 반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KLIPS 자료는 가구단위를 조사대상

으로 한 가구자료와 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한 개인자료로 구분되어 가구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2; 2003).

KLIPS에서는 1차조사(1998년)자료부터³⁾ <표1>과 같이 조사대상 가구에 재수생 이하 자녀의 유무를 묻고, 재수생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개별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와 이용하는 기관의 수 및 종류, 주당이용횟수, 1회 이용시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월평균 수업료 등의 항목을 최대 5가지까지 조사하며 사교육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정도를 ‘매우 부담된다’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KLIPS의 사교육관련 항목과 그 측정은 임금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와는 달리 비임금근로자 가구를 포함하고, 각 가구의 재수생 이하 자녀수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의 사교육 이용에 관한 각 항목별 내용과 비용을 산출해 낼 수 있으므로 사교육비와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에 좋은 자료가 된다.

<표1> KLIPS의 사교육관련 측정항목과 예

재수생 이하 자녀유무	자녀 번호	엄마 번호	사교육 이용여부	이용하는 기관 수	주당이용 횟수 -1	사교육 종류 -1	1회 평균이용 시간 -1	월평균 수업료 (만원) -1
1.있음 2.없음	03	02	1.이용함 2.이용안함	2	3	학원	2	35
					주당이용 횟수 -2	사교육 종류 -2	1회 평균이용 시간 -2	월평균 수업료 (만원) -2
					5	학습지	1	10
	자녀 번호	엄마 번호	사교육 이용여부	이용하는 기관 수	주당이용 횟수 -1	사교육 종류 -1	1회 평균이용 시간 -1	월평균 수업료 (만원) -1
	04	02	1.이용함 2.이용안함	0				

KLIPS에서는 사교육기관이 ‘사교육·보육시설’로 묶여져 자녀가 이용하는 해당 기관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면접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되는 종류는 ①학원, ②개인 및 그룹과외, ③학습지, ④방과후교내보충학습(별도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 ⑤방과후교실(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등에서의 특기지도 혹은 보충학습), ⑥국공립어린이집, ⑦민간어린이집, ⑧놀이방, ⑨직장보육시설, ⑩보육까지 맡아주는 유치원, ⑪일반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LIPS 5차년도(2002)에 조사된 7세 이하 미취학 자녀 89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이들 이 이용하는 보육시설(⑥-⑨)과 유치원(⑩-⑪) 그리고 미취학자녀에게 있어 해당사항이 없는 방과후교내보충학습을 제외한 사교육종류(①-③, ⑤)의 이용을 ‘사교육이용’으로 정의하였고,

3) 1차년도(1998년)에 재수생이하 자녀가 아닌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2차년도(1999년)에는 관련항목이 조사되지 않았으며 3차년도(2000년) 이후부터 재수생 이하 자녀가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이들 4가지의 사교육 종류 이용에 지출하는 비용을 '사교육비'로 정의하였다. 교육의 기능과 보육의 기능이 얹혀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별도로 제외한 것은 학령기 자녀들의 사교육과 같은 범위 내에서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을 진단하여 사교육의 문제를 학령기 이전과 이후를 연계성 있게 이해하고자 하며, 학령기 이전의 사교육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이다.

3. 변수의 선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이용여부에 따른 개인 및 가계의 특성과 사교육 유형, 그리고 사교육비용을 기초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 사교육의 이용여부와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을 Heckman의 Selection Bias Corrected Regression(Heckit: 이하 SBCR)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SBCR(Heckit) 모델은 2단계 OLS(Ordinary Least Squares) 기법으로 사교육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의 결정과정을 별도의 함수로 추정한다. 즉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이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1단계의 Probit 모델 분석에서 얻어진 하나의 추정치 mills ratio를 두 번째 단계인 회귀분석에서 부가적인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선택편의의 문제를 수정한 회귀분석으로써 사교육비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SBCR(Heckit) 모델은 사교육의 이용을 선택하는 과정과 사교육비 지출량 결정과정을 각각의 특성에 따른 다른 변수들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과 단순한 회귀분석을 이용해서 표본 선택에 따른 편의를 수정한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모델의 종속변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단계와 2단계의 종속변수가 다른데, 1단계 Probit 모델의 종속변수인 사교육 이용여부는 학원, 개인 및 그룹 과외, 학습지, 방과후교실의 사교육 종류 중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설정하였고, 2단계 OLS분석의 종속변수는 이용하는 사교육 종류에 대한 각각의 지출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표2>에 제시한 바와 같이 1단계 Probit모델에 미취학자녀의 성별과 연령,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형태, 거주지역, 가족형태가 가변수로 분석되고, 재수생이하의 자녀수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자연로그 값이 연속변수로 분석된다. 사교육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OLS모델에서는 어머니의 취업형태가 어머니의 취업여부형태로 바뀌고, 추가적으로 사교육이용자의 유형이 사교육만을 이용하는 자녀의 여부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사교육을 함께 이용하는 자녀의 여부로 나뉘어 가변수 형태로 모델에 투입되고 분석된다.

<표2>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1단계 프로빗분석 (N=895)	2단계 회귀분석 (N=314)
독립 변수	가변수	자녀성별	남아=1 (여아=0)	1단계와 동일
		자녀연령	6세이상=1 (6세미만)	1단계와 동일
		엄마연령	30세 미만=1 (30-35세=0) 36세 이상=1	1단계와 동일
		엄마학력	대졸이상=1 (대졸미만=0)	1단계와 동일
		엄마취업형태	임금=1 비임금=1 (미취업=0)	취업자=1 (미취업자=0)
		거주지역	서울=1 (광역시=0) 도=1	1단계와 동일
		가족형태	비핵가족=1 (핵가족=0)	1단계와 동일
		사교육이용자유형	-	사교육만 이용자=1 (사교육+유치원·보육시설이용자=0)
	연속변수	자녀수	가구의 재수생이하 총 자녀수	1단계와 동일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의 자연로그값	1단계와 동일
종속 변수	가변수	사교육이용여부	사교육이용함=1 (이용안함=0)	
	연속변수	사교육비용		월평균 사교육비용

IV. 연구결과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인 7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특성은 사교육이용여부에 따른 특성과 함께 <표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895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의 비율이 여아에 비해 8.2%가량 높고, 평균 연령이 3.5세이며 특히 3세-5세 사이의 영아의 비율이 54.1%로 표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이 32.4세이고 평균 교육년수가 12.9년이며 35.4%가 취업자이다. 분석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의 평균 자녀수는 1.9명이며 월평균 267.1만원의 소득이 있고, 핵가족의 비율이 85.1%로 높게 나타났다.

<표3> 분석대상자의 특성

(단위: n, %)

구분	특성	범주	전체	사교육이용	사교육비이용	x ²
			895(100.0)	314(35.1)	581(64.9)	
전체			895(100.0)	314(100.0)	581(100.0)	
자녀 특성	성별	남아	484(54.1)	186(59.2)	298(51.3)	5.18*
		여아	411(45.9)	128(40.8)	283(48.7)	
	연령	0-2세	280(31.3)	14(4.5)	266(45.8)	208***
		3-5세	484(54.1)	203(64.7)	281(48.4)	
6-7세		131(14.6)	97(30.8)	34(5.8)		
	평균(세)	3.5	4.8	2.9		
엄마 특성	연령	30세 미만	213(23.8)	57(18.2)	156(26.8)	8.58*
		30-35세	516(57.7)	196(62.4)	320(55.1)	
		36세 이상	166(18.5)	61(19.4)	105(18.1)	
		평균(세)	32.4	32.7	32.3	
	학력	고졸이하	593(66.3)	205(65.9)	388(66.0)	1.13
		전문대졸	130(14.5)	50(16.1)	80(13.9)	
		대졸이상	172(19.2)	56(18.0)	116(20.1)	
		평균(년)	12.9	12.9	12.8	
	취업형태	임금	213(23.8)	66(21.0)	147(25.3)	2.78
		비임금	104(11.6)	34(10.8)	70(12.1)	
미취업		578(64.6)	214(68.2)	364(62.6)		
가구 특성	자녀수	1명	212(23.7)	55(17.5)	157(27.0)	14.1***
		2명	572(63.9)	226(72.0)	346(59.6)	
		3명 이상	111(12.4)	33(10.5)	78(13.4)	
		평균(명)	1.9	1.9	1.9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0(6.7)	12(3.8)	48(8.3)	17.4**
		100-200만원 미만	326(36.4)	96(30.6)	230(39.6)	
		200-300만원 미만	263(29.4)	106(33.8)	157(27.0)	
		300-400만원 미만	132(14.8)	56(17.8)	76(13.1)	
		400만원 이상	114(12.7)	44(14.0)	70(12.0)	
		평균(만원)	267.1	286.0	256.9	
가족형태	핵가족	762(85.1)	269(85.7)	493(84.7)	0.35	
	비핵가족	133(14.9)	45(14.3)	88(15.3)		
거주지역	서울	176(19.7)	60(19.1)	116(20.0)	0.21	
	광역시	277(31.0)	100(31.9)	117(30.5)		
	도	442(49.3)	154(49.0)	288(49.5)		

*: $p < .05$, **: $p < .01$, ***: $p < .001$

이러한 분석대상자의 특성을 사교육의 이용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우선, 미취학 자녀가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3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특성별 사교육이용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어머니의 연령, 가구의 재수생이하 자녀수,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이다. 표본수의 분포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미취학 남아가 여아보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3-5세 영유아가 다른 연령의 자녀보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으며, 평균 연령에 있어서도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1.9세 높다. 자녀의 평균 연령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평균연령도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차이 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평균 가구의 재수생이하 자녀의 수는 사교육을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 모두 1.9명으로 같으나, 분포에 있어 사교육을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에 있어 2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72.0%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을 이용하는 집단의 월평균 소득이 286.0만원으로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29.1만원 높고, 소득분포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초분석을 통하여 볼 때 특성에 따른 사교육이용여부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기초분석의 결과에서 보여지는 비율 또는 값의 차이만을 가지고 이들 특성들이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이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이용여부의 결정요인은 모델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분석될 것이다.

2. 미취학자녀 연령에 따른 사교육 이용 실태

사교육을 이용하는 미취학자녀를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사교육만을 이용하는 자녀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함께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로 나누어 연령별 분포를 <표4>와 같이 살펴보았다. 사교육이용 자녀 중 사교육만을 이용하는 자녀는 64.6%이고,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과 함께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는 35.4%로 나타나 적지 않은 비율의 미취학 자녀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별도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자녀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례수가 적은 2세 이하 자녀를 제외하였을 때, 3-5세 자녀(61.6%)보다 6-7세 자녀(69.1%)의 경우가 사교육만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고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함께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6-7세 자녀(30.9%)보다 3-5세(38.4%)의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자녀연령별 사교육기관 이용자 유형구분

(단위: n, %, %)

연령 \ 유형	사교육만 이용자	사교육+(유치원/보육시설) 이용자	계
0-2세	11(78.6/4.8)	3(21.4/2.7)	14(100.0/4.5)
3-5세	125(61.6/61.5)	78(38.4/70.3)	203(100.0/64.5)
6-7세	67(69.1/37.7)	30(30.9/27.0)	97(100.0/31.0)
전체	203(/100.0)	111(/100.0)	314(/100.0)

<표5>는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연령 및 이용유형별로 제시한 것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미취학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2만8천원으로 산출되었다. 이용자 유형별로 나

누어 보면, 사교육만을 이용하는 자녀의 경우는 월평균 14만8천원을 지출하여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함께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의 경우보다 5만6천원 가량 더 많이 지출하고, 연령별로는 6-7세가 월평균 15만4천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지출비용도 증가하여 6-7세 자녀가 가장 많은 17만4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용자의 경우에는 0-2세 자녀가 가장 많은 14만8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치원에서 특기교육(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68.8%(김규수 외, 2002)이고, 보육시설의 74.6%가 특기교육을 실시(서문희 외, 2002)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함께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의 경우가 사교육만을 이용하는 자녀의 경우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이들이 이용하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일정부분 특기 및 재능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사교육만을 이용하는 6-7세 자녀의 사교육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는 최근 고가(高價)의 방문형 놀이지도와 같은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염두해 볼 때, 그 사례는 많지 않으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재능 및 특기교육 이외에도 영·영아기의 어린 자녀가 상당비용을 지불하는 추가적인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5> 자녀연령별 이용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전체 N=314, 단위: 만원)

연령 \ 유형	0-2세	3-5세	6-7세	유형별 전체 사교육비
사교육만 이용자	10.0	13.9	17.4	14.8
사교육+(유치원/보육시설) 이용자	14.8	8.0	11.0	9.2
연령별 전체 사교육비	12.4	11.6	15.4	12.8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는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종류는 어떠한 것들인가? <표6>은 미취학자녀들이 이용하는 사교육종류의 분포를 자녀연령과 이용자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사교육만을 이용하는 자녀들을 살펴보면 0-2세 영·영아의 경우는 학습지의 이용비율이 높으며 3-5세(74.4%)와 6-7세(85.9%)는 학원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함께 사교육을 이용하는 5세 이하의 자녀들은 학습지의 이용비율이 66.7%로 가장 높고 6-7세는 학원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원 이용비율에 있어서는 사교육만을 이용하는 자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고, 학습지 이용비율에 있어서는 33.3% 가량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이 사교육만을 이용하는 영유아기 자녀들은 학원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을 이용하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함께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들은 학습지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4세 이상부터 학원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이어 양육지원서비스기관이

된다는 나정 외(200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학원만을 이용하는 영아의 경우는 학원에서 일정부분 보육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함께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들이 이용하는 사교육 종류가 학습지라면 이들은 ‘보육’보다는 추가적인 ‘학습’을 위하여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미취학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의 성격은 사교육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더불어 이용하는지의 여부와 이용하는 사교육종류에 따라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 자녀연령별 이용하는 사교육 종류

(전체 N=314, 단위: n, %)

유형	종류		학원	과외	학습지	방과후 교실	무응답	계
	연령							
사교육만 이용자 (n=203)	0-2세		4(36.4)	-	7(63.6)	-	-	11(100.0)
	3-5세		93(74.4)	2(1.6)	26(20.8)	1(0.8)	3(2.4)	125(100.0)
	6-7세		55(85.9)	5(7.8)	4(1.6)	-	3(4.7)	64(100.0)
사교육+(유치 원/보육시설) 이용자 (n=111)	0-2세		1(33.3)	-	2(66.7)	-	-	3(100.0)
	3-5세		21(26.9)	4(5.1)	52(66.7)	1(1.3)	-	78(100.0)
	6-7세		16(53.3)	2(6.7)	10(33.3)	2(6.7)	-	30(100.0)

3.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이용여부와 지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SBCR 모델로 분석한 결과는 <표7>과 <표8>에 제시된 바와 같다.

1단계 Probit 모델분석에서 사교육의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의 성별과 연령, 어머니의 연령, 그리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자녀의 성별에 있어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 자녀들의 사교육이용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즉 남학생의 사교육 이용율이 여학생보다 높다는 결과(교육부, 2001)와 상반된다. 자녀연령의 변수는 6세 미만의 영아보다는 6세 이상의 유아가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의 경우 학원보다는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이용율이 높다는 서문희 외(200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겠다.

어머니의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가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연령층 어머니들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어릴 때에 사교육을 경험하고, 젊은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이용여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볼 때,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이용이 우선 선택되는 인적자본 투자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가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자녀들은 유

치원이나 보육시설 또는 타인이나 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육과 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이용은 우선적으로 선호되는 인적자본 투자가 아닌 차선의 선택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7> 사교육이용여부의 결정요인: 1단계 Probit Analysis

변수		추정계수(표준오차)
상수		1.62(0.41)***
자녀성별(여아)	남아	-0.21(0.1)*
자녀연령(6세미만)	6세이상	-1.23(0.13)***
엄마연령(30-35세)	30세미만	0.31(0.11)**
	36세이상	0.05(0.12)
엄마학력(대졸미만)	대졸이상	0.1(0.12)
엄마취업형태(미취업)	임금	0.17(0.16)
	비임금	0.05(0.19)
거주지역(광역시)	서울	0.14(0.13)
	도	0.03(0.1)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0.06(0.12)
자녀수	재수생이하 자녀수	-0.02(0.08)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소득)	-0.23(0.08)**
N		895
Log Likelihood		-515.99

*: $p < .05$, **: $p < .01$, ***: $p < .001$

1단계 분석과정에서 얻은 mills ratio의 값과 사교육이용자 유형 변수가 추가되어 분석된 2단계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표8>과 같다.

우선, Lamda의 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사교육비에 관한 분석 시 표본선택 편이의 문제가 우려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단계 사교육이용여부 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자녀의 연령과 가구소득은 사교육비 지출액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방향은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교육의 이용여부와는 달리 사교육비 분석에서는 6세 이상의 자녀가 6세 미만의 자녀에 비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지출하는 사교육비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교육의 이용여부에 있어서는 자녀의 연령과 소득이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령이 6세 이상이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교육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계의 소득수준이 사교육비 지출수준을 결정한다는 선행연구들(정영숙, 1996; 김인숙·여정성, 1996; 유형선·윤정혜, 1999; 김시월·박배진, 1999; 박미희·여정성, 2000; 이승신, 2002)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1단계 사교육이용여부의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주지역과 가족형태 그리고 추가변수로 투입된 사교육이용자 유형변수가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학 자녀들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 결과(박미희·여정성, 2000; 이승신, 2002)와도 같다. 그리고 비핵가족이 핵가족에 비해 적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사교육만 이용하는 자녀의 경우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함께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에 비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결과는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이용이 단지 교육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보육의 목적에 의한 것이기도 함을 의미한다.

<표8> 사교육비의 결정요인: 2단계 Regression Analysis

변수		추정계수(표준오차)
상수		-14.73(14.4)
Lamda		2.78(2.36)
자녀성별(여아)	남아	1.79(1.97)
자녀연령(6세미만)	6세이상	6.69(2.41)**
엄마연령(30-35세)	30세미만	-3.28(3.0)
	36세이상	-0.97(2.1)
엄마학력(대졸미만)	대졸이상	0.48(2.2)
엄마취업여부(미취업)	취업	-0.55(2.63)
거주지역(광역시)	서울	5.65(2.56)*
	도	-0.42(1.84)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5.54(2.4)*
자녀수	재수생이하 자녀수	-1.21(1.57)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소득)	3.87(2.19)*
사교육이용자유형 (사교육+유치원/보육시설이용자)	사교육만 이용	7.09(1.72)***
N		314
F값		2.79**
Adj-R ²		0.11

*: $p < .05$, **: $p < .01$, ***: $p < .001$

이와 같이 사교육의 이용여부와 사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통하여 밝혀진 사교육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사례수가 적은 0-2세 영·영아를 제외하고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다시 SBCR 모델을 이용하여 3-5세와 6-7세 각각의 사교육이용여부와 사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 사교육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3-5세 영아의 경우는 자녀의 성별과 가구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6-7세 유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연령과 가구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5세 집단의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이용에 있어서는 여아에 비해 남아가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6-7세의 경우는 어머

니가 30세 미만일 경우에 30-35세인 경우보다 자녀가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3-5세와 같이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9> 사교육이용여부의 결정요인: 1단계 Probit Analysis

변수		3-5세	6-7세
상수		1.41(0.54)**	2.34(1.4)**
자녀성별(여아)	남아	-0.26(0.11)*	0.08(0.27)
엄마연령(30-35세)	30세미만	-0.01(0.15)	0.17(0.52)
	36세이상	0.25(0.15)	0.61(0.27)*
엄마학력(대졸미만)	대졸이상	-0.05(0.17)	-0.09(0.41)
엄마취업형태(미취업)	임금	0.24(0.24)	0.67(0.42)
	비임금	-0.09(0.26)	1.35(0.48)
거주지역(광역시)	서울	0.09(0.17)	0.03(0.39)
	도	-0.06(0.13)	-0.19(0.29)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0.18(0.16)	-0.17(0.42)
자녀수	재수생이하 자녀수	0.16(0.11)	-0.18(0.24)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소득)	-0.26(0.09)**	-0.56(0.22)*
N		484	128
Log Likelihood		-318.07	-65.96

*: $p < .05$, **: $p < .01$, ***: $p < .001$

2단계 사교육비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3-5세 집단의 경우 엄마의 취업여부와 가족형태 그리고 사교육이용자 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와는 달리 6-7세의 경우는 거주지역과 사교육이용자유형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도 연령집단별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사교육이용자 유형 변수를 제외하고 보았을 때, 3-5세 유아집단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가 미취업인 경우보다 취업하는 경우에 지출비용이 많고, 핵가족인 경우보다는 비핵가족일 때 적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결과이다. 이는 3-5세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의 성격이 보육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6-7세 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가족형태와는 상관없이 거주지역이 서울인 경우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3-5세의 사교육비 지출과는 상이한 결과이며, 학령기 이후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의 영향요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영아와 유아가 이용하고 지출하는 사교육비의 성격은 각기 달라, 영아의 사교육이용과 지출은 보육에 무게가 있다면 유아의 경우는 교육의 성격이 강하여 미취학자녀라는 동일한 집단일지라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 그 성격은 다르게 규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7세 이하 전체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의 성격이 보육과 교육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표10> 사교육비의 결정요인: 2단계 Regression Analysis

변수		3-5세	6-7세
상수		2.77(8.11)	-25.49(38.1)
Lamda		-0.45(1.71)	4.97(7.56)
자녀성별(여아)	남아	-1.21(1.35)	2.77(4.9)
엄마연령(30-35세)	30세미만	-0.24(1.37)	-7.57(8.55)
	36세이상	0.67(1.79)	-8.09(6.2)
엄마학력(대졸미만)	대졸이상	1.62(1.48)	-1.62(6.78)
엄마취업여부(미취업)	취업	3.91(1.71)*	-6.92(8.03)
거주지역(광역시)	서울	1.91(1.62)	20.56(7.23)**
	도	0.91(1.23)	1.3(5.14)
가족형태(핵가족)	비핵가족	-3.35(1.67)*	-9.56(6.89)
자녀수	재수생이하 자녀수	-2.05(1.21)	0.64(4.64)
가구소득	log(월평균가구소득)	1.56(1.32)	5.71(6.37)
사교육이용자유형 (사교육+유치원/보육시설이용자)	사교육만 이용	6.94(1.13)***	9.75(5.44)*
N		203	97
F값		4.36***	1.7**
Adj-R ²		0.21	0.20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사교육의 문제를 거론함에 있어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을 조명함으로써 사교육의 문제가 학령기 이후에 불거지는 문제가 아닌 취학 전부터 시작되어 취학 후 학령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장기간 연이어지는 문제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우리사회의 사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미취학시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직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모두 사교육으로 간주하지 않고, 학령기 자녀들의 사교육과 연계되어 파악될 수 있도록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외의 사교육종류를 본 연구의 사교육으로 정의하여, 미취학자녀들이 어느 정도 사교육을 이용하고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하는 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춘 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미취학자녀들의 사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취학 자녀들의 사교육의 이용 및 지출 비용의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교육 또는 보육으로 이해되었던 학령전 사교육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취학자녀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제외한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이 35.1%이고 사교육

이용자 중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35.4% 정도이며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12만8천원)도 적지 않다는 결과는 더 이상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을 보육의 차원에서 혹은 발달학습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사교육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미취학 자녀들이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함께 사교육을 이용하는 상당수의 자녀들이 어린 영유아 시기부터 학습지나 학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학교교육에 연착(soft landing)하기 위한 준비학습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취학 전에 미취학자녀들이 공교육에 적응하기 위한 별도의 학습이 과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재능 및 특기교육이든 지식학습이든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적응하기 힘들만큼 공교육의 교육과정이 수준이 높은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적지 않은 비율의 미취학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의 기능에 있어 공교육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한 준비학습으로서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취학 전 6세 이상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발달과정에 적절한 취학전 공교육을 제공해야하며, 그 속에서 재능 및 특기교육과 지식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사교육이용여부에 있어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6세 이상의 자녀가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는 자녀의 보육에 있어서는 사적인 차원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중심으로 한 형태가 선호되고 교육에 있어서는 정규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에 대한 이용이 선호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미취학자녀들이 이용하는 사교육은 우선 선택되는 보육 및 교육형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이용이 선호되는 선택에 의한 결과가 아니며 입시 경쟁을 중심으로 한 고액의 과외가 아닐지라도 사교육비용에 있어서는 6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와 소득이 높은 가구의 자녀들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결과는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 사교육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것이 보육의 성격이든 교육의 성격이든, 학령기 이전부터 교육에 대한 불평등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3-5세의 사교육이용여부 및 지출비용에 소득을 비롯한 어머니의 취업과 비핵가족형태 등이 결정요인으로 밝혀진 반면 6-7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지역의 거주나 소득과 같은 학령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변수들이 결정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3-5세 영아들이 이용하는 사교육은 보육의 성격이며 6-7세 자녀들이 이용하는 사교육은 교육의 성격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취학자녀의 사교육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영아의 경우는 보육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유아의 경우는 취학 전 예비학습의 측면에서 이해하여 연령에 따라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사교육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취학자녀들이 이용하는 사교육이 초등학교 이후까지 연계되는 사교육으로서 그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해야하며, 아울러 이 흐름이 어떠한 시점에서 심화되고 변화되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부(2001), 2000년도 사교육비(과외비) 실태조사 결과.
- 공은배·천세영(1989), 한국교육투자정책의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 김규수 외2인(2002), 유치원 운영현황 및 경영실태 분석, 열린유아교육학회 2002추계학술대회, 31-70.
- 김시월·박배진(1999),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10호, 67-79.
-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0권 3호, 101-121.
- 김인숙·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137-149.
- 김지경(2003a),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비교, KLIPS Research Brief No.4,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3b), 자녀연령별 사교육이용유형과 지출비용, KLIPS Research Brief No.5,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3c), 현안문제진단: 미취학아동의 사교육열풍? 제대로 이해해야, 주간 교육정책포럼 제61호,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주 외2인(1999), 한국학생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변동추세, 교육학연구, 제37권 제4호, 307-328.
- 나정 외4인(2003), 영유아 교육과 보육발전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문숙재외 2인(196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2호, 171-184.
- 박명희(1976), 사교육비 현황과 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14권, 제1호, 549-563.
- 박미희·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12호, 189-206.
- 백일우(1999), 과외행위에 대한 교육경제학적 이해, 교육학연구 제37권 제4호, 291-305.
- 박기백(1998), 사교육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제13집 제1호, 149-163.
- 서문희 외2인(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세정·이윤금(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분석: 자녀수와 자녀성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8(2), 81-101.
- 이기숙 외3인(2001),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혁신, 교육인적자원부.
- 이성림(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9호, 143-159.
- 이승신(2000),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제7호, 211-227.
- 정영숙(1996), 가계의 인적자본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소비자학연구 제7권 제1호, 1-13.
- 한국교육개발원(2003), 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2002), KLIPS 1-3 User's guide.

- _____ (2003), KLIPS 1-4 User's guide.
- Arrow, K. (1973), Higher Education as a Filter,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3), 193-216.
- Becker, G. S.(1994),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for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Layard. R. & Psacharopoulos, G.(1974), The Screening Hypothesis and the Returns to Educ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5), 985-998.
- Lino, Mask(1990), Expenditures on a child by husband-wife families, *Family Economics Review*, 3(3), 2-18.
- Mincer, J.(1958),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and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6, 281-302.
- Riley, J. G.(1979), Testing the Educational Screening Hypothe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5-2), s227-s252.
- Schultz, T. W.(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17.
- Stiglitz, J.(1975),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65(3), 283-300.